

이 생각저 생각 지혜롭게 뛰어넘어 좋게만 생각하세요

☞ 29면에서 계속

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깐 잘 끌고 다니게 하려면 생각을 좀 잘하시라. 현재에 사는 걸 봐서 '이거 절대로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거기다가 관한다고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내 생각을 좋게 하세요.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면은 고집이 좁아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렇게 일이 그냥 되고 말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냥 뛰어넘으세요, 그냥 뛰어넘어서 좋게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휴탕물이 있으면은 그건 먹을 수 없죠, 먹을 수 없으니까 그냥 맑은 물이 돼서 먹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라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 없이 생각하는 거고 또 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것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이 아파서 뭐 암이 걸렸다 이러더라도 그냥 죽는다고만 생각하지, 이거를 모두 이 몸 안에 든 그 병 중세를 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암이라고 이름을 지어 놔면 '암도 너와 나와 둘이 아니잖아.' 이렇게 안으면은 그냥 안는 대로 그걸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솟아오르게 되면 소멸되게 되어 있는 게 모두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걸 어디까지나 심성과 학도 되면서 우리가 심성의학도 됩니다.

그러니깐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좀 편안하게, 자손들도 좀 착하게 이렇게 두시려면 몇몇하게, 조그만 거라도 몇몇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해 나가신다면 그 밑의 자손들도 보이지 않게 그 뜻이, 그 아버지가 생각하는 마음과 아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일은 같지 않지만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같아집니다. 같아져서 지혜롭게 남을 해치지 않고도 내가 이익하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해를 안 보면서도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편 이립입니다. "이복에서 영 돌아간 신지도 모르고 스님 이런데 제사를 지내면 어떡합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죠." 이러거든요. 살았다 하시더라도 제사를 지내드려라 이립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배가 고파서 사시더라도 배가 불러서 사실 거다 이립입니다. 여기에 자식의 그 정성으로서 부모가 배고파서 사실 거를 배고프지 않게 사실 수 있다 이립입니다. 그게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동일하게 돌아 가나간 애깁니다. 죽어안만 제사를 지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일도 있고 제사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이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치 마세요, 항상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저 요만한 걸 정성을 들이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또 요만한 생각을 해서 자식들한테 생각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의심치 마시고 주인공에다가 내만이 저 사람도, 저 애도 주인공이 있고 나도 주인공이

있는데, 임제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너만이 여기 내가 이쪽의 주인공에 가서 그저 환히 밝게 해 달라고,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관을 하나까 자식한테도 불이 들어 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저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의심하시면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으셔야죠. 못났든 잘났든 또 공하던 부자든 자기를 자기가 믿어야 합니다. 자기 정신계의 보이지 않는 참자기를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믿으셔야지 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이게 나라도 돌볼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가정생활 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오래 전에 스님이 돼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인연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이 원망스

고 양쪽에들 앉아서 그냥 모두 없으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건빵 있죠? 쪽 그냥 봉지째 놔두고 먹다가 그냥 저거 하고, 그런 거 '저걸 가지고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곤, 주섬주섬 봉지에다 넣어 가지고 그냥 나갔죠. 나가니까 뭐 그냥... 그걸 부처님 법이예요. 그냥 몽땅 어떻게 그렇게 자요? 그러니깐 자게 해 놓고 나가게 한 거지요. 그래서 나가서 한 이를 얻으니까 그것이 다 아물고 다 낫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땐가 그 해에 눈이 많이 와서 어디 가 잘 데가 없고 그래서 인제 소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소나무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갈래진 데 거기를 올라가서 앉았다 잠이 들었던 모양이예요. 눈이 좀 녹아야 어떻게 내려가죠. 그래 잠이 들었는데 그냥 잠이 든 채로 아마 글로 떨어진 모양이예요. 떨어져서 이 앞니 두 이빨이 부러진 거죠,

내 스승이죠, 전부 천찰백 공안이 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없어요, 없는 이유를 뭘까요?

내가 항상 말하죠. 봐도 딴 거 봐야 하고 없 어지고, 벌써 앞서 본 건 과거로 돌아가고 또 봐야 돼. 듣는 거, 현재에 들으면 또 금방 이거 들으려고 그러면 저게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죠. 한번 만나면 또 딴 사람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하니 그걸 어디 만났 다 안 만났. 봤다 안 봤다,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빠르게 돌아가니까, 화해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부처님 법에서는 나툼이라고 그러니까. 화해서 나툼다, 이렇게. 자꾸 바뀌면서, 바뀌는 거를 화한다고 그러죠. 화해서 나툼다. 건너편다, 이게. 그러니 무엇을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으랴. 그러니 그대로 먹을 뿐 이고 그냥 걸을 뿐이고 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만났을 뿐이다. 그냥 모두가 공해 버렸다. 그

고 싶은 마음도 있는 반면에 요즘은 장애아를 낳는 경우가 많아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죠. 공자님 어머니가 공자님을 낳게 된 것은 살면서 늦게 자손을 하나 두기 위해서 기도를 하러 인제 절로 올라갔는데 절의 스님이 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관하고 관해도 안 들어서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육 년째 하고선 칠 년째는 절에 안 갔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루는 꿈에 그 스님이 나타나서 "애야, 빨리 오너라. 네가 좋은 영가를 달라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가를 찾아도 없어서 못 왔는데 인제 하나 들어온 것 같다. 그러니깐 빨리 오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 년 되던 해에 가서 정성을 들고 인제 그걸로 왔는데 그 달부터 얘기가 있어서 낳은 분이 공자님 이립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태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큰 자식을 두느냐 작은 자식을 두느냐, 박약아를 두지 않느냐 두느냐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많아요. 어느 집은 자식이 없는 집인데 이게 정상 이 아닌 어린애로 나타나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던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정상인데 왜 그러느냐 이랬다고요. 정말 정상이 돼서 정상 이라고 그런 건 아니죠.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도 정상인 줄 알고 관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으로 낳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법을 우리가 독차지하고 이렇게 권리가 있고 모든 게 그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도, 능력이 있는데도, 자유가 있는데도 못한다던 아니 되죠. 그거를 왜 내가, 내가 그 마음을 그렇게 내 줘서 했던 말을 못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공해서 칠나칠나 없 어지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는데 어떤 발자국 떼어 놔를 때 내가 떼어 놔다고 할 수 있으리까?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를 떼 발자국을 떼어 놓고 왔을 텐데 그 많은 발자국을 떼어 놓으면서 어떤 발자국을 떼어 놓을 때 내가 떼어 놔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깐 내가 없다는 거예요, 공해서, 나쁜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서 없는 가운데 '참자기'가 과거의 업을 그냥 멸해 주는 거죠.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거니까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무효로, 즉 말하자면 과거에 입력이 된 걸 지워 주는 거죠. 그 지워 주는 역할도 능력이 있어야 지워지지 능력이 없으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지에 같이 한마음이 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어허, 내가 했다고 할 게 없고, 또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또 해 놔다고 할 수도 없구나.' 이러면서도 무공무진하게 자유의 그 용무를 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저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의심하면 누구를 믿습니까.
못났든 잘났든, 공하던 부자든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자기 정신계의 참자기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가족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내 모습이 보면 가끔씩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에서도 중심 잡고 공부할 수 있을는지요.

답) 나는 예전에 빨치산으로 붙들려서 고문을 당하고 그 때 그 사람을 나무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내 자들이 바로 나를 단련을 시켜 주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한 거니깐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외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친 거는, 죄 없이 맞은 때는 금방 낫는다. 이게 실감이 나오. 돌아서서 얼마 안 갔는데 나왔죠.

거기서 인제 예전에 저이 형사들이 사복을 하고 모두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시골집인데 이렇게 나를 방에다가 가봤는데 한참 있으니까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 문 좀 들어 보자.'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드니까 이렇게 큰 문이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양 쪽에 이렇게. 돌쩌귀? 그거 이렇게 끼웠던 게 한쪽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지길래 나와 보니까 책상을 두 개를 이렇게 해 놓

그냥. 그래서 여기가 좀 달라요. 내가 예전에 생긴 거는 하나도 없어지고 다 달라졌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원망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러는 거는 잘생기게 할 수도 있고 잘못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못생기게 한 것은 일리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잘생겼으면 내가 이렇게 중노릇하고 있나? 여기 전부 못났으니까 중노릇하고 있지. 하하. 약삭빠르고 똑똑하고 그러면은 이 공부를 못해. 좀 듣직하고 못났으니까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되 세세생생을 얻는 거죠. 자유권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활한다고 해서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도 말고 오직 그것도 역시 공부다. 모두가, 내 식구가 전부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상대적인 스승이 없다면 내가 생활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또 상대적인 저런 나무 한 그루 모든 게 없다면 내가 그걸 보고 서 게칠 수가 없잖아요.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깐 요만한 거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런데 뭘 그렇게 아동비중 착을 두고 열 쓰고 울고불고 그러느냐 이립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떡하면 내 몸뚱이 통 안에서 벗어나서, 어떡하면은 대(大) 통 안에서, 이 지구라는 이 통 안에서 벗어나 수 있으랴. 이 지구 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구를 바깥에서 굴릴 수가 없어요. 내 몸뚱이 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몸뚱이를 마음대로 자기가 굴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통 안에서, 이 몸통 안에서 벗어나게끔 하려면 모든 거를 거기다가 몰입하고 거기다 놓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밖에,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 봐.' 하고 자문자답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석가세존도 자기 스스로 연등불이 바로 수기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기 받은 놈도 없고 준 놈도 없다 이런 소립입니다. 자기 자들이 연등불이요.

애를 원하는데 장애아에 대한 두려움이...
문) 결혼해서 얼마 안 되지만 애를 빨리 갖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혼을 담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끝!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 전 시판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ong.com / E-MAIL : sungjongsong@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곡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 · 대한민국 명장)